하야가네 메가네바시 다리

1674 년에 세워진 이 석조 수로교는 일본 최초이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수로교입니다. 오무타 지역은 1600 년대 초에 많은 재해를 겪었으며, 1637 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해충 창궐로 인해 작물이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마을에 번져 나가자 지배 세력이었던 다치바나 가문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가뭄 해결 방안이 절실해졌고 다치바나 가문은 하야가네 계곡에 둑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댐은 1664 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높이는 10m, 폭은 80m 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어떻게 공급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용지까지 도착하려면 용수로가 오무타가와 강 위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목조 건축물은 물의 무게 때문에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치바나 가문의 두 번째 해결책은 1634 년에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중국의 석조 아치교 건설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11.2m, 폭 3.15m 의 다리는 인근에서 캐낸 응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다리는 완공까지 10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처가 새로 마련되자 다음 해 마을의 쌀 수확량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아치가 하나인 이 다리에는, 두 개의 아치 구조물이 강에 비쳤을 때 안경처럼 보이는 나가사키의 다리 이름을 따서 메가네바시(안경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야가네 메가네바시는 사람과 말도 이용할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1898 년, 저수지 아래의 갱도 천장에 구멍이 뚫려 물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저수지 수리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둑과 용수로는 방치되었습니다. 다리 일부는 20 세기에 재건되었습니다. 하야가네 메가네바시 다리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